

# 에너지 단신

## 범양냉방공업 장영근 회장 취임

“미래지향적인 기업구조로 탈바꿈할 것” 밝혀



에어컨 및 냉동공조기기 전문업체인 범양냉방공업(주)의 회장으로 장영근 씨가 취임했다.

범양냉방공업은 지난달 7일 충북 진천공장에서 협력업체 대리점 관계자 및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영근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범양냉방공업 장영근 신임회장은 범양의 협력업체인 가야산업을 운영하면서 20여년 동안 범양과 인연을 맺어온 인물로 올해 초 캐피탈웍스인베스트먼트(CWI·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캐피탈웍스인베스트먼트 구조조정조합 컨소시엄을 구성, 범양냉방공업을 전격 인수했다.

장영근 회장은 취임사에서 “거의 반세기동안 가정용 에어컨을 비롯해 각종 산업용 냉동기와 공기조화기 등 냉동공조기기 전문업체로서 성장해왔던 범양의 현실은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제품구조나 수익성, 시장경쟁력, 품질 등에서

타업체에 뒤쳐져 있다”며 “앞으로 안정된 시장기반과 수익구조를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기업구조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양은 올해들어 기업 이미지 쇄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그동안 사용해오던 대표브랜드 「범양」을 「판오션(panocean)」으로 변경하고 브랜드 파워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 「아이디어경영대상」 수상

### 제안활동 1위 기업 확인

한국가스공사(사장 김명규)는 지난 9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제15회 한국 아이디어 경영 전국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2연속 대상을 수상했으며, 공사 김명규 사장은 공사 제안활동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했다.

한국 아이디어 경영대상은 ‘변화의 일상화를 통한 혁신과 창조를 실천하는 기업 구현’을 위해 민간주도로 설립된 산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기관인 한국능률협회가 제정한 것으로, 1987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한국 최대, 최고 권위의 제안 시상제도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합리적인 평가/보상체계, 사용자 중심의 제안전산시스템,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등 제안활동 인프라를 완벽히 구축한 결과, 지난해 1인당 10건, 총 제안건수 2만건을 넘어서 공기업 및 서비스분야에서 명실공히 제안활동 1위 기업 수준임이

평가되었다.

특히, 제안활동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성과보상제도는 타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사만의 독특한 검증시스템인 동시에 보상시스템으로, 시행 1년 후 실현된 수익창출 또는 비용절감액의 일정부분(5~30%)를 직접 직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참여와 성과 공유’라는 KOGAS 고유의 조직문화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산자부, 에너지업계·학계와 공동으로 “2010년 에너지 정책방향과 발전 전략” 방안 논의

### 에너지 기술강국,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

산업자원부와 에너지업계는 지난 9월 19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신국환 산자부장관, 강동석 한전사장,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승훈 서울대학교 교수 등 에너지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주요인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산업 발전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에너지산업의 발전전략을 담은 “2010 에너지 정책방향과 발전전략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신국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산업에서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기후변화협상 등으로 인한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등 에너지를 둘러싼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며 “우리 에너지산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월드컵 4강으로 보여준 우리의 국민적 자신감을 ‘에너지산업 강국’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비전과 실행전략이 긴요하다는 업계 및 학계의 공감대가 있어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금번 에너지정책 발전전략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있는 에너지산업기반 조성, 에너지 기술강국, 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도약,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로의 부상 등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 에너지절약 추진상황 점검 및 4/4분기 에너지절약 추진 시책

### 2002년도 『에너지절약 대책회의』 개최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절약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3/4분기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에너지 수요 증가와 미국의 911 테러 공격 가능성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비한 대책과 에너지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산업자원부장관, 관계부처차관,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동 회의에서 산업자원부는 “02년도 국내 1차에너지 수요가 208toe에 달해 전년에 비해 연 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유가 추이가 불안정함을 감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에너지 절

총인수채리 및 해외약품 도·소매 전문회사  
**진원상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20-1  
 대표전화 : (02)661-4947  
 FAX : (02)666-6819 H·P : 017-249-6613  
 E-mail : jk1998@lycos.co.kr

**드디어 찾았다!!**  
**우리 현장에 딱 맞는 수처리 약품 공급업체**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신속 납품 해 드립니다.**  
**이제 수처리 약품 일체는 진원상사와 상의 하십시오.**

**❖ 취급품목 -**  
 ▶ 정관제, 방정제, 보관제, 세관제,  
 ▶ 녹물방지제, 스케일제거제  
 ▶ 방기탈 살균제  
 ▶ 미생물제제, 염소소독제

# 에너지 단신

약시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02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에너지 절약 시책의 추진상황이 긍정적인 추이를 보이니, 정부주도의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만으로는 최근 에너지 수급상황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 제도를 확대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 “용접기술경기대회” 개최

### 주요 생산기반기술인 용접의 장인 가린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 전자분야와 IT 등 산업의 뿌리인생산기반기술 중 핵심 기술인 용접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전국규모의 '제6회용접기술경기대회'를 개최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체와 기능이 뛰어난 현장 종업원 및 우수한 대학생, 고등학생들에게는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접기술은 우리나라 대표산업인 자동차·조선 전자산업을 비롯하여 전 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생산기반기술이며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초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용접사공업체가 개발주최가 되는 용접기술은 순수한 공정기술로서 생산성향상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축적 및 숙련 고급인력 육성이 필수적이나 그 동안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취약한 작업환경 및 기술개발 여건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분야로 성장발전에 한계를 보여오고 있다. 따라서 1997년 본 용접기술경기대회를 창설한 이후 전국 규모로 실시해 왔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는 용접 기술자들의 기량을 평가·시상함으로써 용접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국내 용접기술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오고 있다

금년도 경기대회는 6월부터 용접 시공업체, 시공업체의 기술자,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거쳐 선발된 총 75명이 본선경기에 참여하여 용접기술을 겨루게 된다.

## 충북에 반도체 및 전자부품 센터 설립 추진

### 2006년까지 약 580억 규모 투입

산업자원부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산업 및 전자부품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 오창산업단지에 「반도체 장비 및 부품테스트 센터」와 「전자정보부품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테스트 센터」 설립에 2006년까지 5년간 총 428억원을 투입하고, 「전자정보부품산업 지원센터」에는 2006년까지 5년간 총 1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반도체 장비 및 부품테스트 센터」는 120명의 클린룸, Wet Station 등 120여개의 테스트 장비를 구축하여 장비 및 부품 성능 테스트, 단위공정, 물성분석 등 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신뢰성 시험 및 분석 교육, CAD/CAM 교육, 장비 사용법 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성능테스트 및 시험·분석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동 R&D, 기술정보 교류사업, 정보망구축 등의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동사업이 추진될 경우, 동센터는 충북지역에 위치한 하이닉스, 동부전자, 암코어, 칩팩코리아 등 반도체 소자업체와 60여개의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반이 취약한 국내 반도체장비 및 부품 등 연관산업의 향상과 국산화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 비축량 감소 우려로 유가 급등

### 연중 최고치 기록

걸프지역과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비축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일면서 24일 유가가 급등,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석유기구의 집계에 따르면 비축량이 지난주 280만 배럴 감소해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천500만 배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영국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대한 문건을 발표했으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과 충돌했다.

이에 따라 런던국제석유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의 11월 인도분 가격이 장초반 1년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29.88달러를 기록한 후 전날보다 배럴당 42센트가 뛰 29.55달러에 마감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심리적 저지선인 배럴당 30달러선이 깨진 다음의 저항선은 배럴당 31.05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원유도 19개월만의 최고수준으로 치솟아 경질유 11월 인도분은 배럴당 40센트가 오른 31.11달러에 달했다가 10센트가 빠진 31.01달러로 장을 끝냈다.

## 국내 에너지수요 선진국형으로 진입

### IEA '한국의 에너지 전망' 특별보고서 발표

향후 30년간 국내 에너지수요는 연간 23%의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선진국

형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William Ramsay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차장은 24일 산자부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망'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보고서는 IEA가 '2002 세계 에너지전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30년 동안의 국내 에너지전망 보고서를 특별분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 자료에서 IEA는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이며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에서도 세계 두 번째의 수입국으로서 향후 세계 에너지교역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차에너지 가운데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석유의 높은 의존도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1차에너지 수요 비중에서 석유의 경우 2000년 현재 53%에서 오는 2030년에는 44%로 감소되고 연간 44%의 높은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가스의 수요비중은 9%에서 16%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자력 역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풍력 등 비수력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도 연평균 4%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IEA 사무차장은 이와 같이 국내 에너지 수요전망을 밝히면서 "진행 중인 한국의 에너지시장 구조개편이 계획대로 수행될 경우의 예상 수치"임을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세계 26번째 IEA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한 IEA의 특별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 석유제품 수입 처음으로 감소

### 8월 석유수급, 수출은 늘어

지난 8월 한달 동안 석유제품 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율을 나타낸 반면 수출은 최고물량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석유제품 수입은 초 1,660만 배럴로 전년동월대비 11% 줄었으며 전월과 비교해도 11.8%의 감소를 나타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제품수출은 총 2,300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102% 감소했으나 전월과 비교해서는 70%로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출량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의 국내 원유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2%, 전월비 0.5% 증가된 6,260만 배럴로 조사됐으며 제품생산은 7,030만 배럴로 전년동월과 전월 45%, 34% 각각 증가했다.

가정과 상업, 산업부문에서 지난 7월에 이어 증가세를 보인 석유제품 소비는 총 5,940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대비 47% 증가율을 보였다.

**PAM**  
PANGYANG AIR CONDITIONING

PAM은 방양의 모토카기인 Pangyang의 최고기술을 반영한 방양식각공기냉방시스템이 유선과 무선방양식각공기(일명무선)로 성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은의집각으로 냉방공기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부평의 기술과 가치의 공존  
40여년 인강을 경이로 승화  
중요한 재산과 미래를 준비는 방양가인  
제2, 제3의 노력으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http://www.bac.co.kr

음식냉온수기      왕복동식냉동기

스크류 냉동기      터보 냉동기

빙축열 코일      Baltimore 콜링타워

공기조화기      시카고블로워

팬코일 유닛      향온향습기

패키지에어컨

방양과의 만남은 당신의 만족

**방양냉방공기주식회사**

▶ 고객상담실 : (02)401-4321, 555-0101(교:761-763)

♣ 클로버서비스 080-022-8815-6